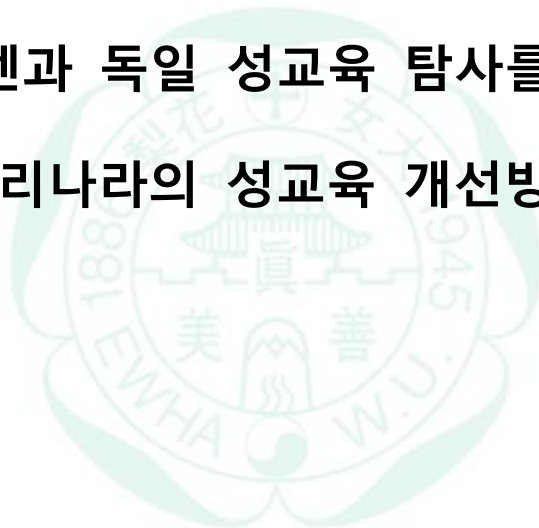


2014학년도

해외탐사Ⅱ(자기설계) 프로그램

스웨덴과 독일 성교육 탐사를 통한
우리나라의 성교육 개선방안



팀명 : 성교육탐사

2015.02.06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주제 및 목표

2.2 탐사내용

2.2.1 우리나라 성교육 현황과 문제점

2.2.2 독일

2.2.3 스웨덴

2.3 개선방안

2.4 탐사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5 별첨

5.1 탐사일정표

5.2 기타 부록

서론

지난 2008년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일명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온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도 사람들은 금세 무관심해진다"며 "기성세대가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왜곡된 인식이 많다"¹고 지적했다.

작년 7월 27일 JTBC에서는 탐사스페셜 2부작 '나는 악마를 만났다'가 방영되었다. 해당 방송은 주로 성범죄 2차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회의 낙인과 편견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까지도 성범죄 '피해자'를 '순수한'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가해유발자'로 여기는 후진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본 탐사 팀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왜곡된 성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건전한 성의식을 확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성교육'을 탐사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팀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팀원들은 모두 성교육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부재했다.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영상을 시청했던 기억, 또는 대강당에서 단체 강의를 듣던 경험이 전부였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² 그 밖에 '인터넷'과 '자료 또는 교재를 이용'하는 비율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성적 행위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낙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성과 관련된 상업적 산업이 확장되면서 성의식 왜곡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즉흥적인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며 특정 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³

따라서 우리는 오랜 기간 선진화된 성교육을 도입해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을 탐사하고자 했다.

1 조두순 사건 나영이 아버지, "그동안 변화 있었지만 아직 멀었다" (여성신문, 141030)

2 문인옥, 윤영옥, 김노을(2006),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 및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3 유재두(2009) 「성범죄자와 일반시민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연구

이는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교육 현실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논의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특히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독일과 스웨덴을 탐사국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독일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의 병원 등 사회적으로 연계된 성교육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탐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된 성교육 시스템을 탐사해보고자 했다. 또한 스웨덴은 최초로 만 4세 이상 유아의 성교육을 의무화한 국가로서 탐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성교육 노하우를 배워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탐사 결과, 독일은 실제로 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병원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이주민에 대한 성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독일은 매년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스웨덴 역시 성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생물학적인 성 지식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성 관련 상담과 성 인권 등에 대한 주제를 활발히 다루는 등 이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성교육은 생물학적 지식, 피임 방법 등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권, 소통과 책임감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성교육 내용과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교사나 학생, 부모들도 많지 않은 편이다. 우리는 성교육이 크게는 한 개인의 전 생애 발달 과정에, 작게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결정권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본론

2. 탐사 내용

(1) 우리나라 성교육 현황과 문제점⁴⁾·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① 시간 확보 문제

2013년도부터 성교육 수업 차시는 15차시로 늘어났으나(기존은 10차시) 대부분 학교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보건 시간에 주로 시행하며 그 밖에 기술가정, 도덕 등의 시간에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과목 교사들은 교과 수업만으로도 벅차 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요과목이 타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교 분위기도 성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성교육 시간은 초등학교 5.17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시간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13년도부터 성교육 수업차수가 15차시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 거의 1명씩 있는 보건교사가 모든 학년과 반의 15차시를 모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과에 성교육과 연관된 부분을 녹여서 지정된 수업 차수를 채우는 상황이다.”-신리초등학교 김현주 선생님

② 공인된 학습교구의 부족과 분배 문제

성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교재들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재 성교육 교재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부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협력해 개발한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는 요구하는 학교에 한해 일부에만 배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재의 질이 다르고 그에 따른 수업의 내용과 질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성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공인한 교재가 필요하고 이를 학교마다 고루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⁴⁾「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2014)」,『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교육 교육자료는 발행한 기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거나 혹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한 것이 나뉘어져 있어 보편적으로 쓰일 만한 정도의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님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부에서 고루 편성해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과서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모든 학교에 고루 분포되기는 어렵다. 우리학교도 내가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교사가 전담하는 학교에서 그 교사가 성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때는 교장선생님이 승낙해주시면 그리고 예산이 된다면 외부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다.”-신리초등학교 김현주 선생님

③ 성 관련 교과 교사 인력부족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한두 명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보건교사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량이 많아 전교생의 성교육을 일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사의 인력부족은 성교육 수업의 문제로 이어진다. 성교육은 그 특성상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복과 주기적 수업은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각 학교당 한 명씩 배정된 보건교사가 학생들 응급치료, 동반 병원 방문, 정수기 체크 등 다른 업무도 많은 상태에서 성교육까지 혼자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탁틴내일

“학교에서 저 한 명이 있다면 성교육을 이렇게 까지 해내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제가 출장 갔을 때 대체해주실 보건교사가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분이 모두 담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와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신리초등학교 김현주 선

생님

④집단적 교육의 한계

한 학급 안에는 다양한 성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서로 다른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주입식,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한국 학교의 경우 외부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 수업을 하는 경우 하루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학생들을 대강당 등의 넓은 장소에 모든 학급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들의 다른 성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학습요구를 만족시키지 어렵고 성교육 수업이 일시적인 수업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 수집한 결과, 성교육 실시 장소에 대해 399명 중 195명인 48.9%가 '대강당'이라 답했다.⁵

"학생들의 성지식에 대한 수준 차이를 집단 교육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학생 편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님

"아이들의 성지식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은데, 다양한 아이들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 탁틴내일

⑤선택과목으로서의 성교육

교육과정에는 수업 차수로 15차시 성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많은 학교와 교사가 재량적으로 성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성교육 수업을 시행하는 데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감독관이 없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2014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 수집한 결과, 성교육을 받은 횟수는 399명 중 207명인 51.9%가 '1년에 1회'라 답했다. ⁶

"현재 여러 교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⁵수미야 유까리(2014), 「청소년 성의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⁶수미야 유까리(2014), 「청소년 성의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원론적으로 성교육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 신리초등학교 김현주 선생님

“우리나라 성교육은 단순 보건교사 재량으로 이루어져 강제성이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박효정 교수님

⑥현실세대 반영이 느린 성교육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많은 학생들이 성지식에 대한 접근이 빨라졌다. 한편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학생들의 성적 경험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들의 첫 몽정 경험 평균 연령은 만 12.6세이며 여학생 첫 월경 경험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1.7세로 이차성징이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짐을 알 수 있다.⁷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스마트 폰 보급률이 높고 학생들 역시 언제든지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느렸던 과거보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또래에 맞지 않는 성인물을 접하게 된 것이 이렇듯 빠른 연령에 성 행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45.5%인 절반 가까이는 인터넷을 통해 성인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⁸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이미 다양하고 수위 높은 정보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을 무조건 멀리하고 금기시하는 교육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성교육 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 성교육 후의 느낌에 대해 399명 중 170명인 42.6%가 “다 아는 내용이라 시시하고 지루하다”고 답했으며 52명인 13%가 “알고 싶은 내용과 상관없이 진행된다”⁹라 답했다. 또한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학생들과 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교과서와 각종 성교육 관련 자료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⁷「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성 행태’ 부분」

⁸여성가족부,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⁹수미야 유까리(2014), 「청소년 성의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¹⁰백정희(2002), 「일부 고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2) 독일

세계 2 차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뚜렷하였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서서히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갔다. 1968 년 성교육이 생물학 교과에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정식과목에 포함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각 지역마다 성교육에 대해 조금씩 다른 법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본 탐사팀이 방문한 베를린의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지역 내에 있는 학교, 병원, 사회적 단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의 성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각 기관과 분야에서 협력, 연계하여 성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이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뽑힌다.

① 통일된 성교육 담당 기관의 존재

독일의 성교육은 'BZgA(독일 연방 건강계몽센터)'가 담당한다. 1967년 설립된 BZgA는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센터이다. 기본적인 운영 철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4년 도입한 'Sexuality' 개념에 기반한다.

" 인간의 성(Sexuality)는 모든 삶의 단계를 통한 인간 발달의 자연적인 부분이며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을 포괄한다" - WHO 'Sexuality'

이에 근거해 독일의 성교육은 '포괄적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을 다룰 수 있도록' 구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지식과 피임 방법에 대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각적 접근, 가치와 윤리관 등 다양한 면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교육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 학교, 학업 이외의 청소년 사업과 미디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탐사팀이 이 항목을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바로 이런 기관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성교육은 BZgA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연방 정부 기관인 BZgA에서 매년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를 성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교육 학습 담당자들은 해당 책자(Brochure)를 토대로 성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도움이 된다. 또한 BZgA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관련자가(선생님, 성교육 전문가 등)무조건 해결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관은 실제로 존재가치가 높아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 곳의 성교육체제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엄청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 기관으로 기준과 목표를 타 기관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 스스로가 매 년 자료를 새로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한 국가의 교육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연방 정부 기관인 BZgA에서 ‘특정 책자’를 발간한다. 모든 성교육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부하며 이를 토대로 성교육을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1년마다 바뀐다. 또한 BZgA에서 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문제에 처할 때 이를 해결해주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상담, 혹은 문제가 심각할 경우 다른 부서(경찰 등)에 학생을 넘겨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베를린 보건소 Sabine Steinmoller

②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성교육 상담소

독일의 성교육은 연방 정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마다 운영 체계와 방식이 다르지만 베를린의 경우 성상담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방문했던 보건소와 같이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이다. 둘째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운영금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충당하거나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 모금하는 형태이다.

시에서 전액을 지원받는 보건소는 베를린 시내에 총 5개가 있다. 해당 보건소에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가(social workers) 등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보건소가 시에 의해 선정됐다. 인터뷰를 했던 Sabine Steinmoller는 “예전에는 베를린 시내 모든 보건소가 성교육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기준

을 통과하는 보건소는 몇 개로 축약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보건소에 배치된 의사와 심리학자는 주로 소 내에서 상담 업무를 맡는다.혹은 학교 요청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성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반면 ‘Social Worker’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에 나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일이 많다.‘Social Worker’는 교육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담 시간을 알려주거나 관련 기관 또는 웹사이트를 알려줘 지속적인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보건소 일하는 사람들은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다 보니 교구에 대한 부족함은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독일의 의사는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금전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학생들을 기꺼이 돕는 일에 참여하며 그들을 단순히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에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피임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 그들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할 필요가 없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피임을 금전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성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교구를 요청하면 BZgA로부터 교구를 담은 박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③ 기관들 간 네트워크 구축

독일에는 다양한 성교육 관련 기관들이 있다.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교사가 직접 수업하기 부담을 가져서 학생들이 기관을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또 다른 요청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 만큼, 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서로 다른 내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베를린의 성교육 연계기관은 일정한 연락망을 갖고 있었다.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연계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어느 학교에 누가 방문을 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등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한다고 한다.하지만 BZgA에서 발간한 책자를 근거로 성교육이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가 가든,사회학자가 가든 성교육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된다.”고 한다.

④ 학생들의 올바른 성 지식 전달 경로의 다양함

성교육 체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시내 전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성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베를린의 경우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장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관심을 효과적으로 가지게 하기 위하여 유명한 잡지를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었다. '브라보(Bravo)'는 독일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매우 인지도가 높은 잡지인데 해당 잡지에 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글, 이미지를 싣거나 광고, 칼럼 등을 연재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이 전파되도록 하고 있었다.

Q: 성교육 기관들이 많은 학교를 가려고 해도 반드시 누락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A: 많은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시도하지만 선생님이 부르지 않으면 갈 방법은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성교육을 받기 위해 선생님께 기관 방문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독일은 청소년 잡지를 성교육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베를린에는 거의 모든 청소년이 보는 잡지, '브라보(Bravo)'가 있다. 이 잡지에 광고를 싣거나 성교육에 대한 칼럼을 써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리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잡지를 통해 알려준다." - 베를린 보건소 Sabine Steinmoller 인터뷰

이처럼 독일(베를린)에서는 성 관련 자료와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실제로 BZgA 웹사이트에서도 기관이 발간하는 책자나 동영상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년에 2번 피임약을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보건소 사회복지가 인터뷰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든 성 지식은 많이 갖추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이는 성 관련 자료나 성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⑤ 'Spiral 커리큘럼'

독일은 성교육에 있어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순서에 따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이를 'Spiral

Curriculum'이라고 부른다. 즉, 어린 나이 때부터 성교육을 시행하되 중, 고등학생과는 다른 내용과 깊이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주기를 두어 학생이 성장할수록 연령대에 맞는 필요한 지식을 반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임신 또는 피임과 같은 주제를 갖고 수업을 하더라도 연령별로 그 내용과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주제를 더 깊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인 연령이 맞는 적합한 성교육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각 학년별 적합한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spiral curriculum"에는 단계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4학년아이에게는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는 예외이다. 만약 학생이 AIDS 예방방법에 대해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대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기본적 단어에만 기반을 둔 (only based on special basic words), 학생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같은 주제를 갖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게 발전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맞다. 즉, 학생의 나이에 따라 같은 주제이더라도 다른 설명방식으로 수업해야 한다."-ChariteHospital/Dr. Christine Klapp 과의 인터뷰

⑥ 다양한 학습교구 및 피임에 대한 접근 용이

독일의 학교에는 한국과 달리 성교육을 위한 학습교구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기관 Profamili 의 경우 성기 모양의 인형, 역할놀이, 익명 질문함, 종이 분류하기 등 다양한 학습교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교구를 충분히 접함으로써 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부감, 어색함을 없애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구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던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익명으로 질문을 받는 방식을 통해 직접 말하기 주저하는 학생들도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교구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기관, 정부 등에 요청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직접 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결국 대부분의 독일 학생은 학창시절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임약에 대한 접근 또한 매우 편리하다. 법적으로 성관계가 합법적인 15 세 이상의 학생들은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산부인과와 같은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것과 매우 다르다.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병원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또한 성교육의 방법이다.

Q: 학생들이 원하면 피임도구를 얻을 수 있는가?

A: 피임기구를 얻기는 매우 쉽다. 18 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 있어서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14 세 이하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의사가 자세하게 이와 관련한 서류(required document)를 작성할 경우 어린 학생에게도 피임약을 줄 수 있다.

Charite Hospital Dr. Christine Klapp 과의 인터뷰

Q: 학습도구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지?

A: 수업 방식 중 하나로 종이를 나눠주고 익명으로 질문 받는다. 이후 종이들을 모아서 질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을 STD, doctor's visit, sex 등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질문의 예로는 '몇 살이 첫 남자친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가요?'가 있다.

만약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부끄러워할 경우 종이를 뽑아서 true / depends / false 로 분류하는 수업도 진행한다. 종이에 '동성애자는 병이다', '애무(petting) 중에는 임신을 할 수 없다'등의 문장이 적혀있다. 학생들은 이 문장카드가 어디에 속할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즉,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적합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성교육 필름, 자료 등 다양한 학습도구가 존재한다.” Pro Familia Andreas Ritter와의 인터뷰

⑦ 인력배분: 타 과목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함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에는 15 차시의 성교육을 하도록 명시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보건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므로 강제성이 없다.¹¹ 결국 한 명의 보건교사가 학교 전체의 성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학교에 있는 모든 생물학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 한 명의 보건교사가 전체 학생을 담당하는 것과, 여러 명의 생물학 교사가 전체 학생을 담당하는 데에는 수업의 질과 양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생물 수업에 성교육이 포함되어있으므로 필수가 아닌 보건교과 등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접할 수 있다.

Q: 독일의 성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우선 성교육은 생물수업에 포함된다. 성교육 교과과정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주마다 다르다. 즉 표준안은 존재하지만 어떤 과목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는 모두 다르다. 또한 선생님의 태도에 따라서도 학생들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성교육도 달라진다. 만약 선생님이 Profamilia 같은 기관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아닐 경우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Profamilia Andreas Ritter와의 인터뷰

⑧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¹¹이화여자대학교 박효정 교수

독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SEXTRA 또는 LOVE LINE 과 같은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이는 독일 청소년 또는 성인들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Profamilia 에서 운영하는 SEXTRA ¹² 의 경우 180 개의 상담센터를 두고 운영 중이다. 또한 질문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그 어떠한 상담이나 조언도 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올바른 내용이 정리되어 나와있거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곳을 찾기 어렵다. SEXTRA 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익명으로 질문과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의 경우 성교육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주므로 올바른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한편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Email 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sextra" 라는 이름으로 180 개의 상담센터가 있다." Profamilia Andreas Ritter 와의 인터뷰

Q: 만약 학생이 조금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고 선생님도 성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한국에서도 낙후지역에 있을 경우 성교육을 잘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A: "LoveLine" 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낙후지역에 있고 성교육이나 성과 관련된 상담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 곳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하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이 더 잘 발달되어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Profamilia 의 Andreas Ritter 와의 인터뷰

- ⑨ 자유로운 수업 방식 (토론식 수업의 분위기,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의견 제시하는 분위기, 거부도 가능)

인터뷰에 따르면 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 분

¹²Profamilia의 SEXTRA, <http://www.profamilia.de/interaktiv/online-beratung.html>

위기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성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학생은 선생님에게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성교육 수업 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보다는 학생들 간의 토론식 수업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론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의 성교육 지식 정도, 이해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가 아닌 또래의 친구에게 배움으로써 성에 관련한 주제를 친근하게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성교육을 거부할 권리 또한 존중되는 분위기이다. 각 학생들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고 교사는 이를 존중 해야 하므로 학생이 개인적인 이유로 성교육을 듣기를 원치 않아한다면 이 또한 존중한다.

Q: 학생들의 성교육 지식에 있어서 수준편차가 존재하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A: 있다. 특히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도 학생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교육을 아예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이 나올 경우 보통 누군가 질문이 있다면, 다른 학생이 설명해주도록 유도한다. 같은 연령대의 친구가 대답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더 이해가 잘되고 수준편차 또한 해결할 수 있다.- Profamilia Andreas Ritter 와의 인터뷰

Q: 한국에서도 교과과정과 권고안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A: 우선 독일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문화적으로 어른을 대할 때 바람직한 태도 등은 정해져 있지만, 성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주어진 자료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느낄 경우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패밀리아에 가면 안돼요? 등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요구는 어른을 대하는 적합한 태도에 어긋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즉,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적합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성교육 필름, 자료 등 다양한 학습도구가 존재한다.

Q: 성교육에는 강제성이 있는가?

A: 성교육에 있어서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으러 이곳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한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는다. 학생들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과 과거가 있고 이는 성교육을 거부하기에 매우 타당한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 - Profamila Andreas Ritter와의 인터뷰

(3) 스웨덴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에 속하여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역사가 깊고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만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이 보완 및 개발되었다. 스웨덴의 성교육은 학교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정규 수업과정으로 주로 생물학 교과서를 통해 성교육을 교육한다. 학교에서 부족한 인력이나 자료 등은 RFSU와 같은 전문 성교육 관련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 교사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학교에서 수업을 시행할 때는 몇 가지 큰 특징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성 인격체로 두고 그들의 질문과 궁금증에 귀를 기울여 그 내용을 토대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수업 방식 또한 단순히 교사의 주입식 강의를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①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토대로 한 교재와 수업

인터뷰 결과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의 기반을 학교에 두고 있다. 한국도 성교육을 다른 기관이 아닌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나 스웨덴은 한국보다 많은 양과 더욱 구체적

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스웨덴의 교과서에는 1년 동안 총 4주 수업 분량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체 구조부터 시작해 생식, 임신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시작해 피임 방법과 성병의 예방 등의 실용적 지식 또 사랑과 파트너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보통 성교육에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토론의 주제가 될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담겨있다. 이처럼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선생님이든 교과서에 기반한 수업만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은 성교육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생애주기, 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year 2에 가르친다.sex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성관계를 갖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파트너를 고르는가 등의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있다. 생식 기관의 사진, intercourse와 성행위 사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STD의 전염, 몸의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Kungsholmen Muzik Gymnasium Anna Karin와의 인터뷰:

Q: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학생들에게 진정 의미가 없다면 그들이 배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실용성이 없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토론한다.

Q: 4주 동안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가?

A: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 꼭 다뤄져야 할 내용은 피임과 STD들에 대한 내용, 어떻게 성병이 퍼지는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생물학교수가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있고 그것에 대해 선생님이 교육해야 하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교과서에는 토론하면- 좋을 주제에 대해서도 나와있다

②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성 인권'에 대한 수업

한국의 개정된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에서 성 인권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서의 제목에 성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과 그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참여했던 신리초등학교 김현주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것과 책으로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교육을 듣게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일 지 생각하고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성에 대한 무엇을 질문하고 싶어하는지 수십 년간 경험을 통해 Question Box(질문 내역)를 갖추고 있었으며, 어떤 정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까 우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서는 질문에 대한 여러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 질문 상자(Question Box)가 있는데 이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서는 질문에 대한 여러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 질문 상자(Question Box)가 있는데 이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여 문제를 일찍 일으킬 수 있다는 질문에서: 일찍 성교육을 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님들의 우려가 아닌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배울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스웨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냐? 어린 사람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어린 이들을 지지하려고 노력한다.

“어린 사람의 말을 집중하고, 질문을 연결시키는 것! 매우 어렵다.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질문들을 이해하고 준비해서 알려주는 것,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르쳐야 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는지를 정해야 한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환상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RFSU Hans Olson과의 인터뷰

RFSU의 사이트에는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성교육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Sex on the map (film) Published 9/10/2012 | Updated 11/8/2013(“Sex på kartan”) is a classic hand-drawn film that is based on teenagers' own questions”¹³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영상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성관계 시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 등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잘못 형성된 관념을 바꿔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에 대한 수업을 위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져 수업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만들고 있다는 것은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뽑힌다.

③토론식 수업 (집단 교육의 한계 극복 가능)

스웨덴의 학급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한 학급당 32명 정도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성교육 수업이 진행될 때는 소규모의 그룹형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룹의 구성원은 적게는 2명 많게는 8명까지 재량적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별로 성에 관한 궁금증을 기반으로 한 주제를 정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식 수업을 통해 집단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첫 시간에 익명으로 학생들의 성에 관한 질문지를 걷어 전체적인 내용을 봄으로써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확인해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제를

¹³RFSU온라인 사이트 <http://www.rfsu.se/en/Engelska/Sexuality-Education/Sex-on-the-map/>

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볼만한 문장을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검증하도록 해서 학생들은 직접 그 지식을 검색해보고 토론하게 된다.

A: 처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받고 보면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보인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없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성 지식을 *commercial pornography* 에서 얻고 이는 비현실적인 몸의 작용을 배우게 한다. 그들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성교육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을 구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론에서 아무도 자신의 사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말하기 원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라고 하지 않는다. *Kungsholmen Muzik Gymnasium Anna Karin* 과의 인터뷰:

④ 학생들 수준을 고려한 수업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나열해 본 결과, 학생들마다 성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날 경우 한 교실에서 수업할 때 이해와 습득의 정도에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어떤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 파악하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조를 구성하고 적절한 내용을 가르치면 어느 정도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방식을 통하여 가르치는지?"

A: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반마다의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젠더(Gender), 상호적 관계, 피임, 등 많은 주제에 대하여 배운다. 각 질문마다 심도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대화마다 조심하여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배려한다. 개인적 취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RFSU Hans Olson* 과의 인터뷰

⑤ 성교육 담당 교사의 연수의무화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을 생물이나 각 교과에서 담당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이 있었다. 스웨덴의 초, 중등교육은 9학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학생 신체발달에 따라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4-6학년, 즉 10세-13세를 가르치는 담당교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는 규칙이 이번에 새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도 정규교과로 성교육이 채택되어 있었지만 이 수업의 질과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의 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규칙이 통과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일부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과 노력은 한국에서도 체계와 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Q: "학생들을 담당 교사가 가르칠 경우,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에 성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A: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를 충분히 개발한다. 게다가 스웨덴에는 최근에 학교에서 4-6학년(10-13살)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반드시 대학교 때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졌다. 다른 학년도 추진 중이다." RFSU Hans Olson 과의 인터뷰:

⑥ 성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에 집약

스웨덴의 기관들과 대학교의 연구소는 성교육의 기초가 타기관보다도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탐사 결과에 포함한 이유는 기관들에서 학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교육에 대한 성과를 놓고 학교와 경쟁을 벌이려는 기관의 모습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본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지원하고, 혹시 교

사의 개인적인 이유나 역량의 문제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을 하여 기관에서 강사가 파견된다는 것은 한국과 다른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장의 승인에 따라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일부 교사의 경우 외부에서 온 강사가 처음 만나는 학생들에게 성이라는 소재의 자극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사회적 기관 (Social Worker) 에서 교사를 위한 지원과 교재를 제작하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은 탐사 후 알게 된 내용이다.

Q: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나?"

A: "우리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나 선생님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한다. 즉, 보충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나 일종의 제안의 개념으로 학교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 같은 단체보다 오히려 학교가 성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끔씩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학교를 가르칠 수는 없고, 우리가 가끔씩 학교에 방문해서 몇 번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보고 선생님이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관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교사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제안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같은 것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고 도구나 교재를 제공한다. (책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한다." - RFSU Hans Olson 과의 인터뷰

⑦ 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용이

스웨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학생들의 성적 고민도 활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개설되어있다. 우선 UMO 라는 사이트(<http://www.umo.se>)는 사춘기 고민과 성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페이스 북(Facebook)의 페이지나 트위터(Twitter)라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학생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웹사이트는 실제로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사이트로서 시작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특별한 곳이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이 사이트뿐 아니라 대표적인 성과 관련된 기관인 RFSU의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RFSU의 온라인 사이트인 (www.rfsu.se)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궁금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남녀의 생식기, 콘돔, 자위 등 궁금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만든 파일이 무료로 제공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다루기 힘들지만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다. 특히나 RFSU는 스웨덴에서 성교육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빈도수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 "인터넷 이용, 정보 찾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성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이야기 되는 사회가 아닌 곳에 사는 경우에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성향이 사회의 전반적 의식과 다를 경우나 고민을 말해야 하는 상대가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UMO라는 사이트는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서 좋다. 매우 유명하다. 특히, 모든 사람이 같은 성적인 취향을 가졌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 이 곳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 Uppsala Margareta 와의 인터뷰:

⑧ 성교육을 보건 교사가 아닌 생물학 선생님이 가르침

사전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보건선생님이 전 학급의 성교육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에 한 명의 보건선생님이 모든 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모든 학급의 성교육을 담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결국 성교육 수업을 일년에 한 번, 이마저도 대강당에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생물학 선생님이 주로 성교육을 담당한다. 생물학 선생님은 정규 수업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생물학 선생님이 수업을 할 경우 해당 교과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교과서의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 4주 분의 성교육 내용을 생물학 시간에 수업하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질문 등에 대해서는 보건 교사가 보조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지식에 대해 다룬다면 보건 교사는 좀 더 사적인 질문 등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친 쿡스홀멘 고등학교에는 총 7명의 생물학 선생님들이 있으며 이는 한 명의 보건교사가 모든 성교육을 담당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나는 생물학자였으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10년 동안 일했다.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은 주로 생물학, science study에 속한다.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생물학, 사회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science study에서 배운다. 그래서 주로 생물학과 science study의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가르친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서 모든 선생님들은 성교육 수업을 해야만 한다. 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등에 대해서도 다뤄야 하며 생물학 수업이기 때문에 주로 몸의 작용에 대해서 배운다.”

Q: 각 학교에 성교육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두는 것이 의무인가?

A: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물학 선생님이 그것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훈련되지 않는다. 몇몇 학교들은 유독 훈련된 학교들도 있음. life studies에 대해 배우는 학교들은 학생들은 윤리적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는데 이런 학교에서는 더 훈련되기도 한다.

모든 학생들은 보건교사와 개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청소년센터와 연계해 주기도 한다. 보건교사와는 더 개인적이고 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수업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지식과 도구들에 대해서 알려준다.- KungsholmenMuzik Gymnasium Anna karin 인터뷰:

⑨성교육의 비중이 각 교과에 분배되어 있다는 점

한국에서 성교육은 학교에 거의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보건 교사가 학년별로 일년에 한번씩 날을 잡아서 가르치거나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혹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제대로 된 성교육 지식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보건 교과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공부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시험범위에도 속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다른 교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웨덴의 국가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라는 교과에서 과학과목 교사가 가르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과학선생님은 보건교사 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거나 한 명 당 지나치게 많은 학생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한국 보다 적었다. 게다가 성교육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생물학뿐 아니라, 사회학, 문학, 공공보건이라는 학문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학문에서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업이 제한된 보건이라는 교과 내에 방대한 내용을 가르칠 수 고를 덜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보건교과를 본 결과 분배된 수업 차수와 적절하지 않게 많은 양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교과서에 실었던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교과에서 성에 대한 지식, 남녀 평등 혹은 성 인권, 등을 가르친다면 보건교과에서는 가르쳐야 할 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성교육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딱 한가지 수업 예를 들면 생물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나 보건 등에도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좋은 생각인 거 같다. 간 학문적인 성격으로 여러 교과 내에 스며들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 Uppsala University Margareta Larsson 와의 인터뷰:

3. 개선 방안

(1)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성 지식 보급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경로로 성적인 내용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 지식들 중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발달이 빨라진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¹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나 부모에게 자문을 구하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때 인터넷에 떠도는 무분별한 성적 지식들을 청소년들은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잘못된 성 지식을 습득할 경우 계속해서 왜곡된 지식으로 재생산 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① 인터넷 사이트 설립: 스웨덴의 경우 'UMO'라는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로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이 쉽게 성에 대한 검증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사이트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전문가에 의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 'Sextra', 'Loveline' 등의 인터넷 플랫폼이 존재한다. Profamilia가 운영하는 'Sextra'의 경우 180개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성교육이나 성에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② 잡지 대신 SNS 이용: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구독하는 잡지인 'Bravo'에서 매달 성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잡지의 구독률이 높은 만큼 잡지에 실리는 정보들은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그 정보들은 전문가들이 발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에 비해 청소년 전문 잡지의 구독률은 떨어지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의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전문가가 근거 있는 성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SNS 페이지가 있다면 성 지식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업 방식의 변화를 통한 집체교육의 한계 개선

¹⁴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평균 13세(초등학교 6학년)부터 성인용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실제로 청소년들 중 13.3%는 성인물을 접한 뒤 성적인 접촉을 했고, 3.1%는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교육 관련 영상을 감상한다던가 일년에 한번 꼴로 일괄적인 집체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집체교육이 성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선 조사 결과 수업의 내용이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 교과의 내용이 학생들이 필요한 성 지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영상 틀어준다거나 일반 교과와 같이 주입식 수업을 진행할 때 소통이 학생들간의 또는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성교육은 표면적인 성교육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성에 대한 문제가 일상과 밀접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문제이니만큼 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와는 차별화된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 ① 토론식 수업: 스웨덴에서는 성교육 수업 시간에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 학급의 전체 학생 수가 평균 32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생 수이다. 그러나 성교육 수업을 할 때만큼은 2명에서 8명 꼴로 그룹을 형성해 그룹의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게끔 한다. 이 때 주제는 각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들은 말하지 않아도 좋다. 토론의 내용은 일반적인 성 지식 또는 궁금증들로 이루어지며 교과서에 다루면 좋을 내용들이 쓰여있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토론식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은 소통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검증할 수 있다.
- ② 과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식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과제 방식은 학생들에게 생각해 볼만한 문장을 던져주는 것이다. 교사가 성에 관련된 이슈나 학생들에게 논란이 될만한 문장을 던져주면 학생들은 과제로 그 문장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조사해간다. 교사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만한 서적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과제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직접 학생이 성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문장들에 대해 한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에 대해 왜곡되었던 지식들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다.

- ③ 익명 질문 쪽지 제출: 스웨덴에서는 수업 첫 시간에 그룹을 형성하면서 학생 개개인들의 질문 쪽지를 받는다. 쪽지는 익명으로 쓰여지며 학생들은 평소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을 쪽지에 적을 수 있다. 담당 교사와 보건 교사는 이 쪽지의 내용을 검사하면서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체교육의 문제점이었던 학생들 간의 수준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익명 쪽지를 통해 궁금했던 내용 외에 성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원한다면 보건 교사와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성교육총괄 및 기관들 간 연계 가능 풀 만들기

독일에는 BZgA라는 독일 연방 건강계몽센터가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매년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여 독일 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한다. 성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책자를 기반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게 되므로 결국 학생들은 공통된 성교육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성교육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각 기관들 간 연계 가능 풀이 존재한다면,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는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기관의 강사가 출강하거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4) 성교육에 관한 교원연수 실시 및 통일된 공인 교육자료 마련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생물학 교사가 성교육을 전담해 가르친다. 따라서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 한편 한국의 경우 보건교사 한 명이 한 학교를 담당하므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성교육을 전담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업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교원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한편, 통일된 공인 교육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성교육 기관은 다양하지만 각 기관에서 추구하는 바가 상이해 이 기관들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가 모두 다르다. 이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혼란을 주게 된다. 또한 학교에 배포되는 성교육 자료 또한 매우 오래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하는 문제가 있다. 통일된 공인 교육자료를 만든다면 인력부족,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성교육 현실에 효과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5) 대학에서의 성교육 실현 방안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탐사 결과 유아기와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성교육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특별히 성교육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대학생들은 따로 성교육 받기보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고민들에 대해 상담을 받는 등 각 지역 상담 센터나 보건소에서 좀 더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탐사 결과 위의 두 나라에 비해 청소년기의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생에게도 지속적인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①.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수업 개설: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따로 개설하지 않는다. 이미 이전 교육과정에서 성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학생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그들 중에는 '유아기에 집에서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반복 학습이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

- ②. 성 상담 서비스 제공: 대학생은 성에 대한 실질적 지식과 고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시기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지역보건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 상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익명의 인터넷 사이트나 성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에게 질문을 받음으로써 대학생의 평균적인 성 지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향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6) 지속적인 문제제기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적이었던 과거 사회에서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점차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성교육 시스템을 갖추어나갔다. Profamilia의 조언에 따르면 사회가 천천히 변화한다면, 어린 학생들이 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는 어른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주도할 때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경우도 현재는 인력부족,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해나가면 점차 변화할 수 있다. 학창시절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대학생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제기한다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4. 탐사의 한계

본 탐사 팀은 한국에 유럽식 성교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인지하였다. 첫째, 유럽국가와 한국 간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수업 시간에 성에 대해 다룰 때도 학생들이 어색해 하거나 부끄러워하

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즉 수업시간에 일방적으로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한국의 교육방식과 달리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는 문화로, 이들의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로는 성교육에 있어 중요시 여기고 논의를 두는 차원이 달랐다는 점이다. 많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성교육 문제점을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성교육 권고안이 있음에도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탐사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런 경우는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차원이라면, 유럽국가의 경우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전에 끝난 상태이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성 인권(동성애자, 성전환자)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차이점이었다. 즉 논의의 차원이 달랐다는 점에서 탐사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유럽 두 국가를 탐사한 결과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도 완벽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피드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정규과목에 성교육이 들어있긴 하지만 커리큘럼상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Margareta Larsson 교수(웁살라 대학교)는 말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는 성교육의 의무보다 더 나아간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이미 스웨덴과 독일이 한국보다 더 오래 전부터 성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법제화 한 국가임에도 나름대로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논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도서관을 통한 사전조사에서 알려졌던 두 나라의 특성과 실제로 현장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 점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본 탐사 팀이 사전조사를 통해 잡았던 방향과 탐사 결과가 달라진 점 또한 한계로 꼽을 수 있다.

결론

본 탐사 팀은 독일과 스웨덴의 성교육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교육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사전조사 결과 국내 성교육은 예상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성교육을 실현할 구조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이 주로 지적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과목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해 성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교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다수에 의해 지적됐다. 그 밖에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지 않는 집체교육과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내 성교육이 오랜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췄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교육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독일과 스웨덴의 성교육 기관과 대학 병원, 연구 대학 등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사 결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교육을 교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교육 잡지와 동화책 등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 내의 성교육을 보완하는 다수의 성 전문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성 관련 기구와 교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다. 스웨덴에서는 성 인권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성에 관한 토론을 꺼리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선행돼 가능한 것이었다.

탐사 결과, 우리는 국내 성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독일의 'Bravo' 잡지나 스웨덴의 'UMO' 사이트와 같이 국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성 지식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SNS 나 인터넷 사이트 설립을 통해 성 지식을 전파하고, 성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집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교육에 한해 토론식 수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안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내 성교육 기관들의 연계 풀을 만들고, 성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성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만 일시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학 학보나 언론 등을 통해 성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와 일반시민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연구(유재두, 2009)

수미야 유까리(2014), ‘청소년 성의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일부 고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백정희, 2002)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 및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김노을, 문인옥, 윤영옥, 2006)

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4)

RFSU (<http://www.rfsu.se/en/Engelska/Sexuality-Education/Sex-on-the-map/>)

(별첨1) 탐사일정표

2014 학년도 해외탐사Ⅱ(자기설계) 일정표

팀명	성교육탐사팀 SET
팀원	우한솔, 손수현, 조윤주, 최진경
탐사국(도시)	독일(베를린), 스웨덴(스톡홀름)
항공편	핀에어 AY0042, AY0917, AY0642, AY0041
기간	2015.1.12(월)-2015.1.23(금)
여정	10 박 12 일[인천-베를린(6)-스톡홀름(4)-기내(1)/인천]

일자	지역	교통편	현지시간	한국시간	주요행사일정
제 1 일 1 월 12 일 [월]	인천	AY0042	11:15	11:15	인천 국제 공항 출발
	헬싱키		14:15	21:15	헬싱키 도착 (경유)
		AY0917	17:00	12:00	헬싱키 출발
	베를린		18:00	2:00	베를린 도착(테겔공항)
					<<독일,스웨덴과 시차 8 시간>> 숙소 이동 및 휴식
제 2 일 1 월 13 일 [화]	숙소	Art'Otel Berlin Kudamm By Park Plaza			
	베를린		7:00	15:00	조식
		지하철	11:00	18:00	●공식 일정 1. Profamilia 담당 : Andreas Ritter ADD : Kalckreuthstraße 4-5 10777 Berlin TEL : 030-39849898
			18:00	2: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3 일 1 월 14 일 [수]	숙소	Art'Otel Berlin Kudamm By Park Plaza			
	베를린		7:00	15:00	조식 ●공식 일정

		지하철	11:00	19:00	2. 보건소 Gesundheitsamt Steglitz-Zehlendorf
					담당 : Sabine Steinmüller
					ADD : Rubensstr. 125, Building 30, 4th floor, 12157 Berlin
					TEL : 030 90299-1710
			18:00	2: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4 일	숙소	Art'Otel Berlin Kudamm By Park Plaza			
1 월 15 일	베를린		7:00	15:00	조식
					●공식 일정
[목]			10:00	18:00	* 시민인터뷰
					장소: 쿠담 거리
	지하철		15:00	23:00	3. Berliner Aids-Hilfe e.V.
					담당 : Thomas Wilke
					ADD : Reichenberger Str. 179 10999 Berlin, Kurfürstenstraße 130 10785 Berlin
					TEL : +49 (0) 1577 57 44 23 0
			18:00	2: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5 일	숙소	Art'Otel Berlin Kudamm By Park Plaza			
1 월 16 일	베를린		7:00	15:00	조식
					●공식 일정
[금]	지하철		14:00	22:00	4. Charité Virchow Klinik
					담당 : Dr. med. Christine Klapp, Mrs.Müller-Heck
					ADD : Klinik für Geburtsmedizin Charité Virchow Klinikum 13353 Berlin
					TEL : 030 450 664 067
			18:00	2: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6 일	숙소	Art'Otel Berlin Kudamm By Park Plaza			
1 월 17 일	베를린		7:00	15:00	조식

[토]			10:00	17:00	●공식 일정
					*시민인터뷰
					장소: 베를린 자유대학교, 훔볼트대
	버스		15:00	22:00	* 서점, 도서관 방문
					장소: dussmann 서점, berlin 주립 중앙도서관
			18:00	2: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7 일	숙소	Best Western Hotel Bentleys			
1 월 18 일 [일]	베를린		7:00	15:00	조식-체크아웃
		AY5206	21:20	5:20	베를린 출발
	스톡홀름		22:55	6:55	스톡홀름 도착
					스톡홀름 숙소로 이동
제 8 일	숙소	Best Western Hotel Bentleys			
1 월 19 일 [월]	스톡홀름		7:00	15:00	조식
					●공식 일정
	지하철		14:00	22:00	5. Kungsholmen gymnasium 고등학교 방문
					담당 : Anna karin
					ADD : Hantverkargatan 67-69 112 31 Stockholm
			18:00	2:00	TEL : 08-508 380 16
					Kungstradgarden 공원에서 시민 인터뷰
			19:00	3: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9 일	숙소	Best Western Hotel Bentleys			
1 월 20 일 [화]	스톡홀름		7:00	15:00	조식
			11:00	19:00	●공식 일정
					* 도서관 탐사
					장소: Stockholms stadsbibliotek, Stockholm Public Library
	지하철		14:30	22:30	6. RFSU
					담당 : Hans Olsson
					ADD : Medborgarplatsen 3 118 26 Stockholm

					TEL : +46 08 692 0700
			19:00	3: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10 일 1 월 21 일 [수]	숙소	Best Western Hotel Bentleys			
	스톡홀름		7:00	15:00	조식
		기차	8:41	16:41	스톡홀름 출발
	웁살라		9:19	17:19	웁살라 도착
					●공식 일정
			13:00	21:00	7. 웁살라대학교 방문
					담당 : 웁살라 대학 Department of Women's and Children's Health
					ADD : Kvinnokliniken Akademiska sjukhuset, ing. 751 85 Uppsala
					TEL : 018-611 9825
			15:00	23:00	Uppasala University Library 도서관 탐사
		기차	18:11	2:11	웁살라 출발
	스톡홀름		18:49	2:49	스톡홀름 도착
			19:00	3:00	석식 후 숙소 이동 및 휴식/정리 회의
제 11 일 1 월 22 일 [목]	스톡홀름		10:00	18:00	체크아웃
		AY0642	14:10	22:10	스톡홀름 출발
	헬싱키		16:10	0:10:00	헬싱키 도착 (경유)
		AY0041	17:30	1:30	헬싱키 출발
제 12 일 1 월 23 일 [금]	인천		9:15	9:15	인천 도착

숙소 정보					
	도시명	체크인	체크아웃		숙소명
1	베를린	1 월 12 일	1 월 18 일		Art'Otel Berlin Kudamm By Park Plaza
	주소 및 전화번호	Joachimstaler Str. 29, Charlottenburg-Wilmersdorf, 10719 베를린, 독일 전화번호 +49 30 884470			
2	스톡홀름	1 월 18 일	1 월 21 일		Best Western Hotel Bentleys
	주소 및 전화번호	Drottninggatan 77, 111 60 스톡홀름, 스웨덴 전화번호 +46 8 14 13 95			

(별첨2) 기타부록

A. 인터뷰 질문

a. The Profamilia

1. About the Profamilia

1) What is the purpose of the Profamilia?

2) How is the Profamilia operated?

3) How was the Profamilia founded in 1951?

- It is somewhat long time ago. Was there any critical event that caused the issue on sexual

education?

- Is there any tremendous development between those times and now about sexual education?

4) We found that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regarding sexual education. What i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Profamilia and other organizations?

- How is profamilia related to other organizations Such as BZgA etc. in Germany?

2. Sexual Education on the Profamilia

1) What contents does the Profamilia teach students?

- Regarding the contents which are educated, how specific do you consider the contents are?

2) Do you consider the more specific the contents are, the more effective they are educationally?

- In Korea, there is a view that if young students are educated so much specific contents regarding 'sex', it can rather stimulate their curiosities about sex.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a worrying idea that it could incite students to have an intercourse.

- We wonder how you think about this opinion. If the contents are too sexual, wouldn't parents be concerned about it?

3) How does the organization educate 'sex' to students?

4) What is the biggest concern when you teach 'sex' in class?

*** Would you mind showing us the actual educational materials-books, texts, video clips, tools etc-used in actual practice?

3. Questions about counseling

1) How do you provide counseling service?

2) How many people use this service?

3) Does the organization accept all requirements no matter who applies the service?

4) What did counselors major in? (What subject did counselors study?)

- 5) What are the requirements or process do people have to go through in order to be a counselor?
- 6) What kind of department exists in counseling service?
 - How are the departments divided in counseling service?
- 7) What is the most common consulting content?
- 8) Do you also provide counseling service about abortion?
- 9) How does the Profamilia counsel when teenagers get pregnant?

4. Sexual Education in Germany

(The current state of sexual education an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xual education in Germany)

- 1) How long has Germany considered sexual education important? (Was there any event that caused social interests about sexual education?)
- 2) How is sexual education being implemented in Germany?
 - Are there any recommendations or relating bill that educators have to follow?
 - If there are recommendations of sexual education, is it compulsory?
 - In Korea, even though there is a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since it doesn't have a strong compulsion, it is not taking effect in general. Is sexual education being operated fully as a recommendation in Germany? (Is there any legal compulsion if it is not operated?)
- 3) We found that the sexual education in Korea is somewhat abstractive and not detailed in contents. For example, teachers teach when mother and father 'loves' each other, they can get a baby. We wondered how much specific the contents are in Germany.
- 4) Who is taking charge of sexual education in Germany?
 - Do schools get help from other organization such as profamilia for sexual education?
 - If institutions take charge of sexual education, how do they distribute the roles between them?

In addition to this, how do institutions unite and cooperate for sexual education?

- There would be level difference between students if sexual education is taking place in school.

How do you cover those differences?

-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part when the social workers practice sexual education in class?
- As you were in teaching position, how much important do you think sexual education is?
- How do students and parents react to sexual education?
- We believe Profamilia is keeping conducting a study or research about sexual education. What is your final goal on those studies?

5) Questions about school

- How regular and systematic is sexual education taking effect in class?
- Do they teach sexual education on regular basis? Is it taking place by individual school's discretion or general enforcement?
- If sexual education is generally enforced, is it provided all the way through the country? (Is there no difference between areas?)
- If it is able to cover all the way through the country, isn't there any manpower problems or lack of finance?
- In Korea, education of sexual education is not concerned importantly in general, since classes are focused on Korean, Math and English. Students and paren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health education as well. We wondered how much importantly sexual education is considered in your country.

6) What is the greatest concern in sexual education in Germany lately?

b. Charité College of Medicine

1. Sexual education in School

1) What is the major role of medical college in sexual education?

-According to foregoing research, we found that sexual education in Germany has a high reputation for community-networking system. In this case, what can be the major role of medical college in sexual education among society?

-We would like to make sure our understanding about 'community-networking system' is right one. Is it correct that community specialists such as doctors, police officers and so on periodically visit schools for teaching sexual education?

-How do you think about the effect of this education system?

-If this education system is organized well, how could this system formed at firsthand? (What makes this possible?)

2) How often do doctors visit school for practicing sexual education?

-Is there any settled policy about giving a lecture in school or is it volunteering on their own? Is there any rules that should follow to educate students at school?

-Isn't there any problem occurred because of not periodic visit if community specialists visit school? Or any problems occurred?

-How much are students interested in class which are done by doctors? Are students proactive in class in general times?

-Is sexual education carried out differently by the age? Which age do doctors usually teach at school?

-What can be the merits and drawbacks when a doctor who is external personnel not knowing students well teaches sexual education?

-While your lessons, are students able to be treated by doctors in direct route if they have a sexual trouble and ask for medical counseling in hospital or clinic?

2. Sexual Contents

1) As a doctor, what do you think the ultimate goal of sexual education should be in school?

-How much important do you think sexual education is?

-There is a view that if young students are educated too sexual contents regarding 'sex', it can rather stimulate their curiosities about sex.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a worrying idea that it could incite students to have an intercourse. We wonder how you think about this opinion. Do you agree the earlier students learn about sexual knowledge, the more effective it is in their lives and in society? Could you explain the reason as well? Could you explain the reason as well?

2) Do you think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xual education and contraception(or abortion)?

3) Do you think the gap exists between the designated policy of sexual education and the actual practice of education?

** Would you mind showing us the actual educational materials-books, texts, video clips, tools etc-used in actual practice?

3. How about in College?

1) Is there any particular subject about sexual education in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Is it mandatory for all students to participate sexual education in college?

-If so, is it about 'the content of sexual education' or 'pedagogy of sexual education class'?

-Do you consid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medical students to learn sexual knowledge?

2) What kind of research regarding sexual education is going on in 'Charite' medical college?

-Recently, what is the greatest concern regarding sexual education lately in Germany?

c. Klinikum (보건소)

1. 정확히 성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2. 이 기관에서 성교육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소가 성교육 전문 담당이 아니라면 성 관련 등의 부서가 존재하나요? 또는 이런 주제의 연

구가 활발한가요?

3.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보건소에서 성교육 관련을 담당하나요?

- 모든 보건소에서 한다면

->모든 보건소에서 성교육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인 것인지

(병원과 성교육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 등)

- 일부 보건소에서만 한다면

->선정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재량인지

4. 수업에 대한 질문 (수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직접 학교 방문 교육을 하기도 하나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가르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용 ex, 생물학적 지식, 피임법, 성병 등)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가르칠 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성관련 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개해줄 수 있는지, 최근 독일의 성교육 트렌드와방향성등을 알 수 있게)

6. 성교육을 담당한다면, 담당자는 어떠한 과정(공부, 연구 등)을 통해 성교육을 담당하게 되나요?

7. 성에 관련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면 주로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 성 기능 장애라든지 성병 혹은 성에 관련한 정서적 문제 등

- 혹은 피임, 낙태로 찾아오는 환자도 있나요?

8. 성에 관련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특히 피임, 낙태의 경우 또는 성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 등의 경우

9. 미성년자들도 성관련 문제들로 병원을 자주 찾나요?

- 미성년 환자들만의 특징적인 문제들은 뭐가 있나요?

- 문제가 있을 경우보통 치료로 바로 연결되나요?

>독일의 성교육 시스템

1. 의사의 시각, social worker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 독일의 성교육 내용, 방식 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 한국에서는 독일과 같이 의사들이 직접 성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특정 직업군(의사, 경찰)등의 전문가들이 성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때 문제점 등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학교 정규교육과의 마찰/학부모의 반대 등)

-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4. 의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학창시절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성 관련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질문

5. 학창시절에 성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 한국에서는 학창시절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우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의사로서 실제 성에 관한 지식도 많고 관련 환자들도 많이 접했을텐데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깊이 체감하시나요?

- 성교육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의 성교육과 비교

1. 우리나라는 현재 국, 영, 수 위주의 공부로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이 뒤로 밀리고 있다. 성교육에 대한 관심, 지원이 부족하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투입된다면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또한 우리나라는 성교육이 필수가 아니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15차시의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하는 것만이 의무인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성교육에 조언해주고 싶은 점이 있나요?

3. 위에 언급했던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시 말하며, 학교에 외부인이 수업을 할 때 물론 전문적이라는 점과 부족한 교사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점 등 장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학생 수준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 학교 교사들의 반대 등의 문제(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점 제기)가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단순 성지식 획득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인식, 성의식 가지기 등)

** 독일의 최근 성교육의 가장 큰 관심, 연구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teaching materials)가 있다면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

**성교육 또는 성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면 보여주거나 자세한 설명해줄 수 있는지 요청

d. Kungsholmen 고등학교

1. Sexual Education in School

1) How is sexual education implemented in school?

- Since when the Kungsholmen have started managing sexual education?

- What does the Kungsholmen teach to students?

- Is it mandatory to place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sexual education at each school?

- Are most teachers in school trained for teaching sexual education?

- Is there any part for checking teacher's sexual knowledge to teach students in class when getting a teacher certification?

- There isn't any particular subject which only covers sexual education in Korea. Instead, sexual contents are taught in the class of public health or health care. We wond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of Sweden is also the same way.

- How regular and systematic is sexual education taking effect in class?

- Is the sexual education system formed and regulated by national dimension or is it individual school's own curriculum?

- Is there any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which is regulated by law?

(** If so, would you mind showing us the recommendation?)

- Presuming the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exists, we wonder if teacher gets penalty when they doesn't follow the recommendation.

- Is school cooperated with other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RFSU to practice sexual education?

- What is the most difficult issue when teaching sexual education in class?

** Would you mind showing us sexual education research files?

2) How much are students interested in sexual education?

- Do students participate actively in sexual education class?

- As a teacher, how do you think about sexual education?

3) According to foregoing research, we found that sexual education in Sweden has a high reputation for grade-classified system. What does the Kungsholmen teach at each age or grade?

- How do you think about the contents being taught prior to highschool? Do you consider the current sexual education system is appropriate for young students who are under highschool students?

- In Korea, there is a view that if young students are educated too sexual contents regarding 'sex', it can rather stimulate their curiosities about sex.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a worrying idea

that it could incite interest to a sexual intercourse. We wonder how you think about this opinion.

- Do you consider the more specific the contents are, the more effective they are educationally?

(If the contents are too sexual, wouldn't parents be concerned about it?)

- Are there many students who apply what they learned in class in real sexual life?

4) We guess students learn about sex in school in usual all over the countries. However, if so, there could be the limitation since each student must have different knowledge level of sex. How could you cover those differences?

- How could teacher handle this different sexual knowledge level of students?

5) How does school deal with students who suffer from much bigger sexual trouble like pregnancy or abortion in school?

-Is there any specialists or clinic nearby school for students?

2. Comparing to the Sexual Education in Korea

1) In Korea, sexual education is not concerned importantly in general since classes are focused on Korean, Math and English. Students and paren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health education as well. We wondered how much importantly sexual education is considered in your country.

- How long has Sweden considered sexual education important?

2) We have found that the sexual education in Sweden is especially focused on teaching students' own sexual rights. What is the ultimate goal when teaching sexual education in Sweden?

3) What is the greatest concern in sexual education in Sweden lately?

e. RFSU

1. About RFSU

1) What is the purpose of the RFSU?

2) How was the RFSU founded at first?

- Was there any critical event that caused the issue on sexual education?

3) How is the RFSU operating?

- By whom? How is the unit which operates the RFSU educated?

-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regarding sexual education. How is the RFSU affiliated with the other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 What i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RFSU and the other organizations?

2. Sexual Education on RFSU

** Would you mind showing us the actual educational materials-books, texts, video clips, tools etc.-used in the actual practice education?

1) What does the RFSU teach students?

- We heard that the system of sexual education in Sweden has the high reputation for age-specific education. What specific contents are educated in what specific age?

- How come are the contents and the specific age matched?

- Wasn't there any opposition about the contents being taught in the actual practice of education?

- We watched 'Sex on the map' and 'Sex on your own Way' on your site. Isn't it too much specific for middle school students?

- Do you consider the earlier students are taught sexual education, the more effective it is?

- Regarding the contents which are educated in Sweden, How much specific do you consider the contents are?

- Do you consider the more specific the contents are, the more effective they are educationally?

(If the contents are too sexual, wouldn't parents be concerned about it?)

- There is a view that if young students are educated too sexual contents regarding 'sex', it can rather stimulate their curiosities about sex.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a worrying idea that it

could incite students to have an intercourse. We wonder how you think about this opinion.

- We read the RFSU considered discussion in sexual education importantly. Is the discussion class regarding sexual education common in Sweden?

- Why do you consider the discussion class is important? How much effective is it educationally?

- Do students participate in discussion proactively?

2)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part when the social workers in RFSU practice sexual education in class?

3) Does the RFSU consider there has been tremendous change in sexual education comparing when this organization was just found?

3. Sexual Education in Sweden

1) How long has Sweden considered sexual education important?

- Was there any event that causes social interests about sexual education?

2) How is the sexual education being implemented in Sweden?

- Is there any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that educators have to follow? (What are the requirements or process do people have to go through in order to be an educator?)

- There is the specific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in Korea. However, the thing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 are not generally realized in the class for many reasons. If there is a specific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in Sweden, we wonder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 are fully realized in class. We would like to ask you whether it is compelled by law as well.

3) How much are parents and students interested

- students' reactions or participation in class-in sexual education?

- How much important is the sexual education considered by parents and students?

4) We checked there is the counseling service in the RFSU on your website. How is the counsel

service being implemented?

- Is the demand for counseling high enough to run the service?
- Does the organization accept all requirements no matter who applies the service?
- What is the most common consulting content?
- Does the organization cover the issue on abortion as well in counseling service?
- How does RFSU counsel when teenagers get pregnant?

5) Questions about school

- Do you teach sexual education in class on regular basis?
- Is it taking place by individual school's discretion or general enforcement?
- If sexual education is generally enforced, is it provided all the way through the country? (Is there no difference between areas?)
- If it is able to cover all the way through the country, isn't there any manpower problems or lack of finance?
- Sexual education is not concerned importantly in general since classes are focused on Korean, Math and English in class of Korea. Students and paren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health education as well. We wondered how much importantly sexual education is considered in your country.
- If health education(sexual education) was not considered importantly at first, how has the change been made?
- We guess students learn about sex in school in usual all over the countries. However, if so, there could be the limitation since each student must have different knowledge level of sex. How could you cover those differences?

6) What is the greatest concern in sexual education in Sweden lately?

f. Uppsala University

1. Situation of Sexual Education

1) Since when the Uppsala have started managing this department?

2) What kind of study is being carried out relating sexual education?

- What is the main purpose of studying?

- What is the major concern when you study about sexual education?

*** Would you mind showing us sexual education research files?

3) When did the study about sexual education start?

- How was the study started? (Was there any event that causes social interests about sexual education?)

- Is the study about sexual education considered as important?

- Was there any problem while doing research?

4) As a professor, How do you think about the current sexual education system?

- Do you think there has been tremendous change compared to the very beginning when the study about sexual education just began?

- Do you consider there is still a point that needs to be improved?

- Isn't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recommendation of sexual education (legally set policy) and the contents being taught in the actual practice of education?

2. Sexual Education in Uppsala University

1) We found that sexual education is taking effect actively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school.

How is the sexual education implemented in the University?

- If the sexual education is pro-actively taking place in the University, What does the Uppsala teach to students?

- What specific subjects get in charge of sexual education?
- Is it only possible for major students to take sexual education class? or is it possible for any students in your university?
- Are there many classes which deal with sexual education?

3. Comparing to the Sexual Education in Korea

1) In Korea, sexual education is not concerned importantly in general since classes are focused on Korean, Math and English. Students and paren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health or sexual education as well. As a professor, How do you consider about the importance of sexual education?

- In addition to this, we wonder how much importantly sexual education is considered in Sweden.
- If health education(sexual education) was not considered importantly at first, how has the change been made?

2) There is a view that if young students are educated too sexual contents regarding 'sex', it can rather stimulate their curiosities about sex.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a worrying idea that it could incite students to have an intercourse. We wonder how you think about this opinion.

- As a professor, do you consider the more specific the contents which are taught in classes are, the more effective sexual education is?

3) We guess students learn about sex in school in usual all over the countries. However, if so, there could be the limitation since each student must have different knowledge level of sex. How could you cover those differences?

- Which do you consider is the more effective way to teach 'sex' in class, one is the way to teach all students in a class regardless of their knowledge difference of sex, the other one is the way to only educate som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4. What is the greatest concern in sexual education in Sweden lately?

B. 인터뷰 정리

a. Profamilia

인터뷰: Andreas Ritter

Q. Profamilia의 운영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

A. 크게 네 가지 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교육 담당 팀(sexual education team)이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우러 오고 학생, 부모, 선생님들 대상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장애인의 성관련 부분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사 팀(doctor team)이 있다. 피임, 임신 등과 관련하여 그 분야로 특별화된 의사(이 곳에는 3명의 의사가 있음) 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위한 진료가 아니다.

또한 임신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팀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 팀(counseling psychologist)이 있다. 이들은 관계(relationship) 문제, 성(sexuality) 문제, 낙태 등의 상담을 주로 한다. 하지만 아예 무료는 아니다. Profamilia는 85%의 정부 지원과 15%의 자체 운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상담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 지불해야 한다. 1시간에 30유로를 보통 받지만 학생 등은 6유로에도 가능하다. 이는 다른 상담센터의 절반 가격이다. 또한 Profamilia에서는 커플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주택보험(house insurance)으로 하는 상담은 오직 일대일 상담만 가능하다. 또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전문적 분위기 (professional atmosphere)를 만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수업 차 Profamilia를 방문해보면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나중에 학생들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기 쉽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sextra" 라는 이름으로 180개의 상담센터가 있다.

한편 JUWEL youth counseling sess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정해진 날짜에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그냥 와서 무료로 질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Q. 독일의 낙태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가?

A.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었을 때 동독은 낙태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았다. (liberal regulation-14주 내로 낙태 가능) 반면 서독은 규제가 엄격하여 다른 나라로 가서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고 난 뒤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어 낙태는 12주 내로 가능하지만 상담이 필수로 규정되었다. 이 상담은 Profamilia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12주 이후에는 낙태가 어려워 다른 나라로 가서 하는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낙태해야지만 돈이 없는 여성 등을 지원

하기 위한counties도 존재한다.

Q. 독일의 성교육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성교육이 확립되기까지 결정적인 사건, 운동 등이 있었는지?

A. 우선세계 이차대전 이후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었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에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뚜렷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학생운동(student move)가 일어났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고 한 명의 남자로서, 한 명의 여자로서 살자는 움직임이었다. 이는 그 당시 보수적이던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자도 성에 대해 주도권을 잡을권리(임신을 할지 말지 등)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또한낙태에 대한 이슈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이 학생운동은 당시 세대의 인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1968년 생물학에 포함되는 형식으로성교육이교과과정에 처음 만들어졌다.

1970년대에 부모로서 우리가 성교육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있었다. 성교육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그 결과 부모와 학교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로써 독일의 성교육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었다.

1980년대에는 HIV가 가장 큰 이슈였다. HIV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유럽 내 많은 두려움과걱정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HIV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랐으므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두려움에 떨었다. 이에 보수적 입장에서우리가 어딘가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적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나치라는 과거 있는데 어떻게 또 다시 그럴 수 있냐고 주장했다. 결국 진보가 목소리를 얻었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힘을 얻었다. 학교에서는 성적인 즐거움(sexual pleasure joy.. big love)을 통해 성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가르치고 그 이후 동성애자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HIV crises는 독일의 성교육이 명확히 확립되고 자리 잡는데좋은 계기이었다. 이 때의 확립된 성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과 HIV crises 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 25년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 (gay right, sexuality) 에 대한 많은 발전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문학시간에 동성애자를 다룬 소설 넣을 것인지등의 논의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지역별, 사람별로 다른 반응과 의견이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슈를 매우 불편해하고,자녀에게 이런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반대한다. 반면 개방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Q. 한국의 경우 너무 자세한 내용을 가르칠 경우 아이들이 성교를 일찍 시작하거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부모의 반대도 있는 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독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찍 배울수록 일찍 섹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연구 결과 아이들

이 일찍 성교육을 받을수록 성과 관련한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자신이 언제 섹스를 하길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즉 보수적 입장의 걱정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Q. 독일의 성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우선 성교육은 생물수업에 포함된다. 성교육 교과과정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주마다 다르다. 즉 표준안은 존재하지만 어떤 과목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는 모두 다르다. 또한 선생님의 태도에 따라서도 학생들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성교육도 달라진다. 만약 선생님이 프로패밀리아 같은 기관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아닐 경우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Q. Profamilia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Profamilia로 오는지?

A. 그렇다. 또한 선생님들은 지원해서 오지만 그들은 수업시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다.

Q. 그렇다면 성교육은 교사의 재량에 결정되는 것인데, 만약 선생님이 가르칠 의지도 없고 Profamilia 같은 기관에 데려오지도 않는다면?

A. 그러할 경우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한 제재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한 조정이 딱히 없다. 교과과정에 무엇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지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선생님 재량차이이다.

Q. 한국에서도 교과과정과 권고안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A. 우선 독일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문화적으로 어른을 대할 때 바람직한 태도 등은 정해져 있지만, 성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주어진 자료가 너무 오래 되었다고 느낄 경우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패밀리아에 가면 안돼요? 등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요구는 어른을 대하는 적합한 태도에 어긋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즉,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적합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성교육 필름, 자료 등 다양한 학습도구가 존재한다.

Q. 학생들의 성교육 지식에 있어서 수준편차가 존재하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A. 있다. 특히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도 학생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교육을 아예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이 나올 경우 보통 누군가 질문이 있다면, 다른 학생이 설명해주도록 유도한다. 같은 연령대의 친구가 대답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더 이해가 잘되고 수준편차 또한 해결할 수 있다.

Q. 학습도구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지?

A. 수업 방식 중 하나로 종이를 나눠주고 익명으로 질문 받는다. 이후 종이들을 모아서 질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을 STD, doctor's visit, sex 등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질문의 예로는 몇 살이 첫 남자친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가요? 가 있다.

만약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부끄러워할 경우 종이를 뽑아서 true / depends / false 분류하는 수업도 진행한다. 종이에 '동성애자는 병이다.' '애무(petting)중에는 임신을 할 수 없다.' 등의 문장이 적혀있다. 학생들은 이 문장카드가 어디에 속할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클래스에는 보통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며, 여자와 남자는 나눠서 수업한다. 여자는 여선생님이 남자는 남선생님이 담당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한편 성교육 영상으로는 "SEX WE CAN"이라는 영상이 있다. 이는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Q. SEX WE CAN 영상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구체적일수록 성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A. 이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5세 남자 아이의 경우 섹스에 대한 특별하고 직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 실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이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남자아이들은 디테일에 매우 관심 있어서 이러한 측면의 질문을 답 해주어야 한다.





<실제 성교육 학습도구를 보여주는 장면>

독일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률이 매우 낮다. 이는 독일의 성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잘 사용한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왜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쓰고 성교육을 받았음에도 청소년 임신률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피임도구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임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사용자는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생기더라도 이를 모르고 안전하다고 여길 경우 청소년 임신이 나타날 수 있다.

Q. 성교육에는 강제성이 있는가?

A. 성교육에 있어서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으러 이곳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한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는다. 학생들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과 과거가 있고 이는 성교육을 거부하기에 매우 타당한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

Q.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A.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다. BZgA에서 4년마다 아이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느 연령에 얘기하는지? 어떤 피임도구를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등을 질문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10년간 이러한 연구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피임도구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첫 성관계 맺는 연령도 매우 안정적이다. 또한 청소년 임신률도 매우 낮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성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보수적 시각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도 논의가 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관점이다.

Q. 만약 학생이 시골에 살고 있고 선생님도 성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한국에서도 낙후지역에 있을 경우 성교육을 잘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A. "LoveLine"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낙후지역에 있고 성교육이나 성과 관련된 상담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 곳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하다. 한국은 인터넷이 더 잘 발달되어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Q. (Profamilia의 질문) 한국의 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보수적이고 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인가?

A. 친구들끼리 성을 주제로 말하는 것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이러한 주제를 밖으로 꺼내기는 아직 어려운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다고 본다.

A. (Profamilia의 대답) 만약 사회가 천천히 변화한다면, 어린 학생들이 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독일도 1960년대 학생운동이 일어날 당시 한국처럼 성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변화는 어른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주도할 때 시작된다고 본다.



사진 1(Profamilia 내의 의사팀이 진료를 보는 곳)



사진 2,3 (의사팀의 진료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체모형)



사진 4,5 (성교육시 사용되는 유아용 성교육 도서)

b. Charité College of Medicine

인터뷰: Mrs. Müller-Heck - 최근 몇 년 간 학교의 건강 관련 부서(the department of Health in schools)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지역 정부의 성교육 (sex-education of the regional government of Berlin)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 Dr. med. Christine Klapp: 산부인과 담당의사 (gynecological working doctor in hospital)로 10년 이상 학생과 여성을 위한 의과의 성교육 (medical sex education)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Q. 독일의 성교육 시작 연령은?

A. 처음 성교육은 4학년 때 (한국나이로 9살-10살 정도) 시작된다.

Q. 교사가 성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A. 그럴 일은 없다.

Q. 하지만 커리큘럼대로 배워야하는 학년에 만약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주저하거나 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A. 특정 학년에 그러한 경우로 성교육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학년 전체를 다니면서 한번은 성교육 받을 것이므로 아예 성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프로패밀리아(Profamilia)와 다른 성교육 기관들을 상호보완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점점 다른 기관의 방문 성교육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Q. 의사와 선생님이 둘 다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역할의 중요도는?

A. 의사는 선생님과 또 다른 측면으로 집중하여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Q. 부모가 성교육을 반대하는 경우는 없나?

A. 작년에 매우 드문 경우지만 무슬림 학생이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 하지만 감기가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다.

A. 성교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가능한 성폭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학생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이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방법도(saying yes or no)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

Q. 법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나?

A. 법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14세 이하의 경우 금지되어있다.

Q. 나이별로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A. 학년별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교사는 그것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이 커리큘럼에 정해진 내용 이외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들이 배울 내용에 대해 매우 흥분해있으면 관심이 폭발하게 되고 선생님은 성교육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 배우기에 아직 어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Q. 학생들이 원하면 피임도구를 얻을 수 있는가?

A. 피임기구를 얻기는 매우 쉽다. 18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 있어서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14세 이하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의사가 자세하게 이와 관련한 서류(required document)를 작성할 경우 어린아이에게도 피임약을 줄 수 있다.

Q. 한국여성들은 피임약에 대한 두려움, 부작용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이전엔 독일 여성도 그랬지만 연구 결과 50년 동안 피임약 부작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임신이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Q. 의사로서, 어릴 때 성교육을 할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A. 어려운 질문이지만 더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각 학년별 적합한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spiral curriculum"에는 단계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4학년아이에게는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는 예외이다. 만약 학생이 AIDS 예방방법에 대해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대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기본적 단어에만 기반을 둔 (only based on special basic words),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같은 주제를 갖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게 발전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맞다. 즉, 학생의 나이에 따라 같은 주제더라도 다른 설명방식으로 수업해야 한다.

한편 어릴 때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까먹게 된다. 또한 이미 다안다고 생각 추후의 성교육에서 열심히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Q. 성교육을 위한 학습도구는 충분히 각 학교에 존재하는지?

A. 그렇다. 역할놀이, 영상, 인터넷, 아기모형 등 충분히 갖추고 있다.

c. Klinikum(보건소)

인터뷰: Sabine Steinmoller - 산부인과 담당

Q. 독일에서 성교육은?

A. 6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의무 성교육을 하고 있음. 특히 보건소에서는 해외 이주 여성 대상 성교육도 같이 하고 있음.

Q. 보건소에서 학교로 파견 나가는 건지?

A. 담임 재량에 따라 5 or 6학년 때 생물학 시간에 성교육 함. 9 or 10학년 때는 피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함.

학교를 방문하지는 않고 시에서 따로 정한 사람들이 학교 방문을 한다. 학생들이 직접 보건소로 와서 상담 한다.

모든 연방 정부가 같지는 않고, 베를린 상황은 다른 연방 주에 비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독일 성교육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첫째는, 보건소와 같이 시에서 완전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기부금을 일부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Profamilia는 85%는 시에서 지원 + 15% 기부금 등으로 운영)

독일에서 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 재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선생님이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

Q. 어떻게 상담 받아야 할 학생들을 파악하는가?

A. 성교육에 그다지 관심 없는 선생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법으로 지정돼 있음. 성교육을 그 선생님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능력 부족, 종교적 이유 등) 다른 담임이 맡거나 기관들에 직접 방문해 성교육 요청하게 됨.

Q. 교육은 얼마나 자주하는가?

A. 성교육이 생물학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생물학 시간에 성교육을 배우게 됨.

Q. 안 지키는 경우는?

A. 없다. 반드시 권고안을 따른다.

생물학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건 생물학적 지식을 배움. 피임법 등의 성교육은 9 or 10학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물학 시간에 배우게 됨.

Q. 보건소는 여러 개인가? 베를린에 있는 학교들 모두 담당이 가능한가?

A. 보건소가 여러 개 있긴 함.

예전에는 모든 보건소가 성교육 관련해서 일 했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소 5개가 베를린 전체를 담당하고 있음.

5개 보건소가 정해진 이유는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가(social workers)가 협력을 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 이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5개가 선정된 것.

모든 학교에 나가는 건 아니다. 성교육 적으로 전문된 선생님들이 기관들에 직접 연락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짜인 성교육 프로그램만 수행하게 됨.

Q. 요청이 없는 경우는 방문하지 않는건가?

A. 선생님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안 함.

Q.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학교에 방문하면 성교육 내용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A. 학교 방문하게 되면 연계기관에 모두 연락함. 전문가들 간 연락망이 있어서 학교 갈 때마다 연락. 의사가 가든 보건소가 가든 나가서 하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성교육 내용은 거의 다 비슷.

Q. 성교육 내용은 무엇이 바탕?

성교육은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가(social workers)가 담당한다. 심리학자와 의사는 학교 방문 잘 안 함.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이 주. social workers가 학교 방문 많이 함. 학생들 상담 시간 또는 교육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학생들에게 관련 기관 알려주거나 웹사이트 알려줌. 학생들이 오면 사전 약속 없어도 그 때 그 때 만남.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있고 정보 공유 통해 가르치는 내용을 조정한다.

연방 정부 기관(BZgA)에서 '특정 책자' 만든다. 모든 기관에다 책자 배부하며 이 책자들을 토대로 성교육 가르치는 것. 가이드라인은 1년 마다 바뀜.

또한 BZgA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 (ex.부모님과의 문제) 등등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주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Q.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제재가 있는지?

A.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게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한다는 것. 문제가 심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들 (폭력 등 경찰)에 문제를 넘김.

선생님의 의무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

선생님이 안 지킬 때는 제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음. 안 지키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Q. 누락되는 학교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문제는?

A. 많은 학교에 방문하기 위해 시도는 하는데 선생님이 부르지 않으면 갈 방법은 없음.

상담은 학생들에게 달렸음.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할 때 갈 수 있음.

우리가 많이 힘을 싣는 것은 어린이들 잡지(Bravo) (잡지 'Bravo' = 독일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잡지. 통역에 따르면 학생들 '백이면 백 다 보는' 잡지라고 함)에 광고를 싣거나 성교육에 관한 칼럼 등을 써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많이 알리고 있음.

Q.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이나 상담에 참여하는 편?

A. 일주일에 세 번 상담 시간이 있음. 수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80명 정도 옴. 1년에 두 번 정도는 피임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함. 피임 기구는 상시 무료. 상담 받으러 오거나 피임 기구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질문 많이 하고 감.

독일도 대체적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게 다기하지는 않음. 하지만 부모에 따라 다름.

부모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 지식은 어떤 학생들이든 많이 갖추고 있는 편임. 어떤 약 써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는 알고 있음. 자료나 성지식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편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여학생의 경우 좋은 점은 산부인과(우리나라의 '산부인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듯 합니다.) 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 1:1로 친구 같은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음. 의사도 상담 시간 따로 뒤서 의사와 학생이 1:1로 상담할 수 있게 함. (통역에 따르면, 한국은 산부인과가 개인병원이지만, 독일의 경우는 국가 병원이라서 국가에 의한 봉급제로 운영됨. 병원에서도 상담에 따로 돈이 들지 않으니 상담이 하나의 업무로 지정돼 있음.)

Q. 학생들이 산부인과에서 성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A. 그렇다. 성상담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

산부인과가 진단 후 알려주는 기구 또는 약은 저소득층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 지불해서 구입.

Q. 보건소에서 성교육 담당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가?

A. 5명

Q. 인력이 적은 건 아닌가?

A.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Q.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내용은?

A. 가장 중요한 건 피임법이라고 생각. 특히 여성은 월경, 주기에 대한 설명.

Profamilia의 경우 남녀가 같이 성교육 하는데, 여기는 남녀를 확실히 구분해서 성교육을 함.

Q. 상담 말고 교육도 이루어지나?

A. 그렇다. 선생님과 방문하면 선생님은 바깥에 나가 있고 학생들은 기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음. 학생들이 직접 기구를 접하면 질문이 많아짐. 질문에만 답하다보면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Q. 성지식의 수준 차이는 어떻게 조정?

A.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보면 지식수준 차이를 알 수 있음. 수업 후에 담임에게 혹은 학생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다시 오라고 제안해 지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육 또는 상담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의사와 엑스트라 약속 시간을 잡아 줌. 바로 문제 해결 가능토록 함.

Q.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인가?

A. 문제 발견은 많이 있음. 문제 알고 상담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약속 잡고 의사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Q. 너무 어린 나이에 성교육 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는데

A. 개인적HK 5,6학년 때 성교육을 너무 자세히 가르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 실제로 5,6학년 때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지식을 가르칠 뿐, 자세히는 가르치지 않는다. 9,10학년(14살, 우리나라 나이는 15살)부터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

우리가 어렸을 때도 독일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다. '성에 대한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말들. 하지만 성지식을 모르고 덜컥 임신하는 것보다 확실한 성지식을 가르치는 게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Q.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피임과 학생들이 용기를 갖는 것. 본인이 K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누가 피임도구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독일에서는 보통 남성이 가져야 한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피임도구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Q. 성교육과 성범죄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성교육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성폭력 예방과 관련 있는지는 의문.

성폭력은 심리학적 문제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 하지만 성교육 안에 대화(communication)에 대한 학습이 있는 만큼 성범죄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함. 하지만 예방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추가로 성교육 할 때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함. 그러다 보면 성범죄 예방

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Q. 인력과 교구는 충분한지

A. 교구에 대한 부족함은 없음. 성교육 한다고 기관에다 교구 요청 시 성교육 시 필요한 교구를 담은 박스가 있음. 인력 또한 생물학 선생님이 담당하시니 문제는 따로 없음.



사진(성교육 시 필요한 교구 박스에 담긴 다양한 피임기구들)

BZgA와 같은 기관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 독일에서는 처음에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1967년 BZgA 설립하게 됨. 30년 전에 비해 피임도구도 많아짐. 지금은 백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으니 지금의 문제는 어떤 기구를 어떤 상황에 써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 문제 역시 기관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Q. 학교 선생님에 대한 성교육은?

A. 따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 선생님의 경우 교과 이수할 때 성교육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함.

d. Kungsholmen 고등학교

인터뷰: Anna Karin –생물학 교사

Q. 학교에서 어떻게 성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A. 나는 생물학자였으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10년 동안 일했다.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은 주로 생물학, science study에 속한다.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생물학, 사회과학을 선택

하는 학생들은 science study에서 배운다. 그래서 주로 생물학과 science study의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가르친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모든 선생님들은 성교육 수업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콘돔을 사용하는지는 다루지 않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 등에 대해서는 다루야만 한다. 생물학 수업이기 때문에 주로 몸의 작용에 대해서 배움.

Q. 각 학교에 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두는 것이 의무인가?

A.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물학 선생님이 그것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훈련되지 않는다. 몇몇 학교들은 유독 훈련된 학교들도 있음. life studies에 대해 배우는 학교들은 학생들은 윤리적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는데 이런 학교에서는 더 훈련되기도 한다.

Q. 선생님이 될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의 성지식을 체크하는가?

A. 안타깝지만 없다.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더라도 성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훈련해야만 한다.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고정관념을 재생산해낼 뿐이다. 이 상태에서 가르치면 학생들의 편견을 더 강화시킨다.

Q. 성교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내용을 꼭 다루는 것인가?

A. 그렇다. 꼭 다룬다.

Q. 반에서 성교육 수업이 어떻게 체계화되어있나?

A. science study에서 다룸. (권고안을 보여줌) 배관공이나 헤어드레스가 되더라도 그 권고안을 따른다. (biology의 권고안도 보여줌) 무엇이 가르쳐져야하는지 함축적으로 들어있음. 규범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 우리 팀은 각 연령단계에 뭘 가르쳐야하는지 연구했다. 보여준 권고안은 year2에 해당. 이런 내용이 year1에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커리큘럼 상으로는 더 어린 학년에서도 성교육을 필수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year1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지역에 있는 학교,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성교육을 하기 힘들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전부 관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음) year1에는 익명으로 학생들이 성에 관한 질문을 적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체크한 다음에 그 질문들에 대해 다 같이 의견을 나눈다.

Q. 학생들이 각자 다른 레벨의 성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A. 처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받고 보면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보인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없다. 많이 알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성지식을 상업적 포르노에서 얻고 이는 비현실적인 몸의 작용을 배우게 한다. 그들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론 성교육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을 구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론에서 아무도 자신의 사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말하기 원하지 않

는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라고 하지 않는다.

Q. 한 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가?

각 반에 32명의 학생이 있다. 거기에서 소규모로 그룹을 나누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본다. 각 그룹에 대해서 이야깃거리를 짠다.

Q. 성교육 수업은 1년에 얼마나 열리나?

일 년에 4주정도 한다. 생물학 교수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 결합해서 수업을 하기도 한다.

Q. 한국에도 이런 권고안이 있는데 현실에서 권고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생물학교수가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있고 그것에 대해 선생님이 교육해야하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교과서에는 토론하면 좋을 주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Q. 한국에는 한 학교의 보건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다뤄야한다. 생물학 선생님이 몇 명 정도 있는가?

A. 7명이 있다.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가 따로 또 있다.

Q. 보건교사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A.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익명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특히 건강 파트에 대해서.

Q. 어떻게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답변하는가?

A. 모든 학생들은 보건교사와 개인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청소년센터와 연계해준다. 더 개인적이고 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수업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지식과 도구들에 대해서 알려준다.

Q. 소규모 그룹으로 나눌 때 보통 한 그룹에 몇 명 정도 구성되는가?

A.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2명~8명으로 다양하다. 선생님의 재량이다. 선생님이 몇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Q. 그렇게 재량적이라면 선생님이 성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

A. 문제일 수 있다. 교장이 처리해야할 문제. 모든 학생들이 성교육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교장은 책임이 있다. 성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학교 법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Q. (종이에) 기관에서 학교가 성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가?

A. 그들은 랜덤으로 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학교에 대해 조사한다. 그러나 세세하게 선생님들을 다

조사하지는 않고 교장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그들은 선생님과 교장에게 성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강제와 처벌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Q. 성교육 자료를 정부가 그냥 제공하나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나?

A. 정부에서 성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온다. 필수로 가져가야하는 것은 아님.

Q.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는가?

A. 그렇다. 최근에 선생님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선생님을 위해 스페셜 코스를 제공한다. 스톡홀름의 건강센터에서도 수업을 제공. 선생님들이 스스로 성교육을 배우기 위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많다.

Q. year1의 연령대는 얼마인가?

A. 16세이다.

Q. 14세가 성행위를 배우는 나이인가?

A. 법적으로 14세 이전에는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

Q.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 오기 전에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들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임신에 대해서, 언제 임신이 되는지 또 임신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야한다.

Q. 고등학교 이전의 성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학교 재량에 달렸다면 어느 파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도시, 학생, 학교 등..)

A. 종교적 색깔을 띤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middle east 지역.

Q.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떤가?

A. 학생들은 매우 배우길 원하고 그들에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참여한다. sex는 사회 주변에 퍼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virgin에 관한 문제,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원한다. 모른다면 그들에게 고민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

Q. 우리나라도 성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토론이라던지 수업에 잘 참여하지는 않는다. 수업 분위기가 같은 것이 흥미롭다.

A.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기를 훈련시킨다. 스웨덴에서는 배우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용하고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Q. 한국에서는 보통 영상을 보여주거나 강의를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떤가?

A. 선생님이 강의하고 영상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고 토론을 하게 한다.

Q. 어떤 과제를 주는가?

A. 피임약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어떤 생각해볼만한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대해 학생들이 찾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한다. ex) 여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 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등의 자극적인 문장에 대한 검증. 직접 찾아보면서 참여하고 더 배울 수 있다.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Q. 기관들이 학교에게 자료들을 잘 제공하는가?

A. 그렇다. 많은 자료들을 주고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다면 rfsu나 rfsl에게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Q. 기관에서 방문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

A. 꽤 그렇다. 또 그들은 선생님들보다 더 젊기 때문에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기시 되는 것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피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쉽다. 1960년대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1910년에 피임 지식에 대한 규제가 생겼다가 1930년대에 없어졌다.

Q.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학생들에게 진정 의미가 없다면 그들이 배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실용성이 없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토론한다.

Q. 4주 동안 어떤 콘텐츠들을 가르치는가?

A. 선생님이 따라 다르다. 꼭 다뤄져야 할 내용은 피임과 STD들에 대한 내용, 어떻게 성병이 퍼지는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다.

Q. 학생들의 다른 성지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가?

A. 그룹을 지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후 각 그룹별로 토론할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

Q. 남자와 여자가 같은 학급에 있을 때 개인적인 일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A. 개인적인 것에 대해 고백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배울 수 있지만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가르치려 한다. 성은 이성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Q. 선생님께서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A. 고정관념 등을 깨는 것. 성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압박감.

Q. 선생님과 부모님 간에 갈등이 있기도 하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Q. 만약 한명의 생물학자만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A. 성교육 주제에 관련한 특정한 기간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런데 성교육 권고안에 1년에 한 번식의 수업은 지양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조금씩 분산해서 평등 등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한다.

Q. 우리나라의 학교는 성교육 자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스웨덴은 어떤가?

A. 좋은 자료들을 갖고 있다. 이 주제는 교과서에 거의 수록되어있다. 13-16세에 생물학 교과서에 다뤄져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뤄져있다. 학생을 위한 과제 제안서도 가지고 있다.

임신, 생애주기, 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year 2에 가르친다.

sex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성관계를 갖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파트너를 고르는가 등의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있다. 생식 기관의 사진, intercourse와 성행위 사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클라미디아와 같은 질병의 전염, 몸의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한다.

Q. 어느 나이에 sexual behavior를 배우는지?

A. puberty에 대해서 12살에 배운다.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

Q.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A.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스웨덴 사람들은 대체로 개방되어있음.

Q. 아이들을 위한 책은 있는가?

A. 있다. IBF.

Q. 교과서는 정부에서 만드는 것인가?

교과서는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만든다. 교수와 전문가들이 책을 출판한다. 다양한 교과서들이 있다.

Q. 그렇다면 교과서에 따라 내용이 다른가?

책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준 권고안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e. RFSU

인터뷰: Hans Olsson

Q.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나?

A. 우리는 우리가 직접 찾아는 것도 있지만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나 선생님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학교의 중요성 언급).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한다. 즉, 보충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나 일종의 제안의 개념으로 학교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 같은 단체보다 오히려 학교가 성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끔씩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학교를 가르칠 수는 없고, 우리가 가끔씩 학교에 방문해서 몇 번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보고 선생님이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관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교에 도움을 주는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 등과 같은 나라는 우리의 상황과 조금씩 다른데 그 곳에서는 보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의 대부분의 경우 결국 학교에 교육의 기초를 두고 그 기틀을 보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A.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는 행사와 같은 것은 없고, 교사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제언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같은 것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고 도구나 교재를 제공한다. (책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책을 보면 이와 같이 피임기구인 콘돔에 대한 사용 방법, LGVT와 같은 경우의 상담을 하는 경우 등을 교사를 위해 제공한다. 우리가 학교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끔씩 이와 같은 책(작은 책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기도 한다.

Q. 성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수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A. 다소 선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선 매우 인기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선 질문에 대한 여러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 질문 상자(Question Box)가 있는데 이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여러 질문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를 모른다. 또 다른 생각이지

만, 사람들의 성에 대한 시야를 넓히려고 한다. 그리고 몸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외에도 사람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상호작용이나, 서로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편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수업을 진행한다.

Q. 가르치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확실히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암리에 숨기거나 밖으로 표현하기 쉬워하는 분위기 그리고 안 된다고 숨기는 것은 문제를 직면한 개인에게 도움을 찾기 어렵고 대다수의 어린 학생 들이 변해가는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은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성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고정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에 따라 서나 선생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스웨덴의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성교육을 받게 된다. 이것은 전부터 시행해온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다. (책을 보여주며), 이 책의 커리큘럼을 보면 4단계로 나뉘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것들을 키워드로 알려주는 셈이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과거 세대보다 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 낮아졌고,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서 지식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Q. 선생님이 가르칠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교육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닌가?

A. 우리는 그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를 충분히 개발한다. 게다가 스웨덴에는 학교에서 4-6학년(10-13살)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반드시 대학교 때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법이 최근에 정해졌다. 다른 학년도 추진 중이다.

성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는 사실 힘든데, 국내의 많은 부모와 사람들이 성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직접 성교육을 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의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를 꺼내고 싶지도 않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신 맡아주는 것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실제로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도 그들은 상당히 만족한다. 그들은 지식이 많이 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경험했을 때 덜 불안해한다.

Q. 일찍 성교육을 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A. 단순히 부모님들의 우려가 아닌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배울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젠더(Gender) 규범에 있어서 말하자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사회 대중의 보수적인 성적인 규범이 아이들을 위험에 다다르게 만든다. 각자의 개인적인 선호와 대중적 관념이 다를 경우 혼돈이 오는데 예를 들면 남자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강해야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가녀리고 연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지식이므로 중요하게 토론되어야 한다.

만화가 그려진 책을 보여주는데 (10-13살 정도 보는) 남자와 여자가 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내용이 담겨있음.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의식이나 생각의 개념을 배울 수 있게 이 책에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고, 피임의 방법이나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림과 함께 담겨 있으며, 특히나 그림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Q. 학교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A.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지를 잘 알려주는 게,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피피티(ppt)나 성 교육 자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이 학교에서 이야기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방식을 통하여 가르치는지?

A.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반마다의 배워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젠더(Gender), 상호적 관계, 피임, 등에 대하여 배운다. 각 질문마다 심도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대화마다 조심하여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배려한다. 개인적 취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Q.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떤 가?

A. 선생님에 따라 많이 좌우 된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구체적인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편이다.

Q. 한국에서도 많은 교재를 개발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수업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나?

A. 매우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협력하여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것은 가능하고 또 다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식이다. 교사 연합이나 부모님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뤄가면 실제 수업과 문제의 괴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Q. 다양한 성과 관련된 기관들?

A. 다양한 개별적 상담이나 클리닉(Clinic)이 있다. 피임이나 의학적인 측면의 개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UMO같은 사이트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주요한 성문제 상담소이다.

Q. 다른 단체나 기관과도 연합하여 일하는가?

A.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umo는 비슷한 일을 하긴 함 좀더 넓은 차원에서, 여성관련단체나 폭력보호 단체 등은 각자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만, RFSU

가 더 많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린 반드시 금지적인 행동만 다루지는 않는데, 일부러 좀 더 긍정적인 입장과 시각을 다루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가끔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RFSU와 RFSL은 서로 컨설팅해주고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단체인 Football club(스웨덴어로:Fotboll For alla)과 함께 연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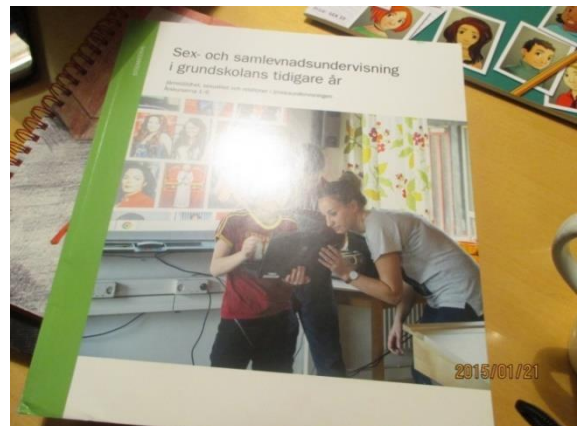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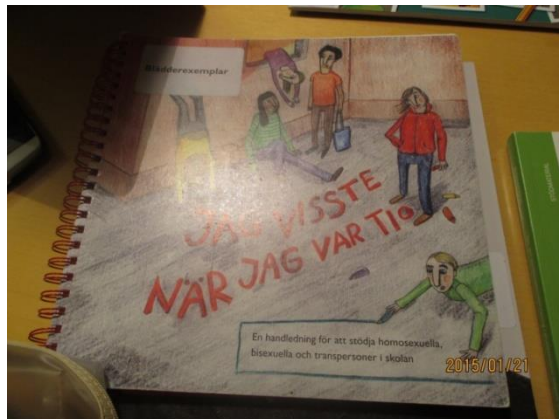
Q. 스웨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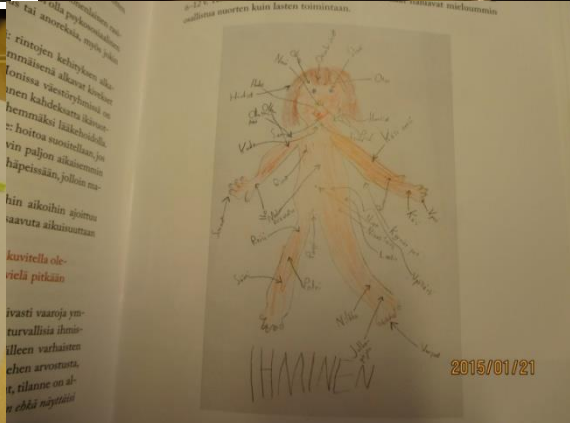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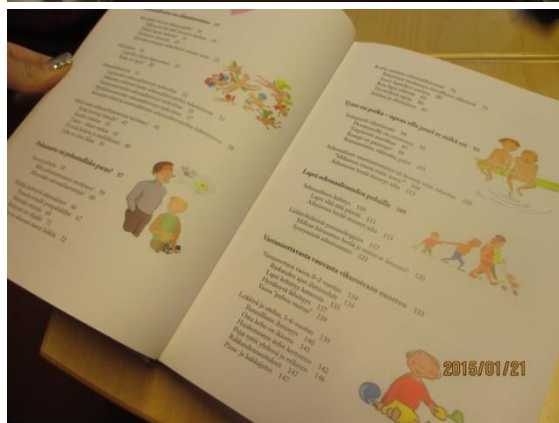
A. 어린 사람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어린 이들을 지지하려고 노력한다. 최대한.

Q. 서울에 왔었는데, 한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A. 사회마다 다르지만, 토론을 많이 하고 가치를 계속 리뷰하고,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봐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나 소수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포함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어린 사람의 말을 집중하고, 질문을 연결시키는 것! 매우 어렵다.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질문들을 이해하고 준비해서 알려주는 것,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르쳐야 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는지를 정해야 한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환상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RFSU에서 보여준 성교육 책자 사진





f. Uppsala 대학교

인터뷰: Margareta Larsson – 교수

이 기관의 역할은, 리서치를 한다. 어떻게 성교육이 체계화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조사를 했다.

Q. 스웨덴의 성교육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이드 라인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좋다. 교장의 권한에 따르게 되어 있다. 모든 학교와 교장에 성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책임이 지어져 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수업되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매우 적은 양의 분단에 해야 할 양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학교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히 상세하게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딱 한가지 수업 예를 들면 생물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나 보건 등에도 속해 있는 것들이 좋은 생

각인 거 같다. 간학문적인 성격으로 취급되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누가 정확히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위험이 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택적인 과목이 있다 성교육을 가르치지 위한 과목, 그러나 필수는 아니다. 선생님도 계속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비록 강제는 아니지만 성교육이 스웨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A. 몇몇 학교에서는 너무나 훌륭하다. 생물학에서만 아니라 사랑, 성, 다른 표현, 성적 정체성, 등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RFSU 같은 곳에서 많은 좋은 재료를 만든다. 그런데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은 아니라서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하나 그들은 매우 옹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Q. 지금과 초반기가 많이 차이가 있나?

A. 아니다 별로 없다. 이것은 매우 예전에 시작되었는데, 점점 바뀐 것이지 크게 확 바뀐 것은 없다. 생물학적 지식에서 시작해서 태도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은 느낌 같은 것이 차차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Sexuality Alcohol Nicotine Tobacco 하지 말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성적인 행동은 그런 식의 나쁜 해가 되는 것 만은 아니다.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 사회의 문제를 금기하는 식의 교육 때문에 성이 그런 것에 포함되기도 했다.

Q. 성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나?

A. RFSU 같은 단체에서 꾸준히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고 교사를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수강을 해야 하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있다.

Q. 한국에서 꽤 분명한 성교육 체제가 있는데 수업시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것이 스웨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A. 우리는 완전히 모든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양과 질적으로 매우 학교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학교가 완전히 지키지 않는지는 않는다. 그런데 매우 제한적인 가이드 라인이 있다. 무엇이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룰은 정확히 없어서 각자 매우 다르게 해석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문제이다. 모니터 하고 감시하는 체계나 강제가 필요하다.

A. 많은 나라에서 부모님 동의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다. 스웨덴에서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알아서 그날 결석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부러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과목을 배울 권리와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알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국에서는 성교육이 아이들의 자극을 받아서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A. 오히려 전혀 반대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많은 성교육을 받을수록 더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성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성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말은 없다. 스웨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증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 망설이지는 않는다.

Q. 매스미디어의 관계와 학생들의 호기심이 관련된 것은 맞나?

A. 미디어나 인터뷰나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많은 역할을 한다. 인터넷이 다른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포르노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 포르노는 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심어주기 때문에 특히 남자애들이 포르노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발견하고 토론한 것은, 그들도 걱정하고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성관계뿐만 아니라 젠더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일으킨다. 몸에 대한 묘사도 여성을 바비(Barbie)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또한 남자는 항상 남자답고 성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이미지화시키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를 하는 거 보다 더욱 좋지 않다. 좋은 점은, 나를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해주고 해서 포르노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

그런데 다른 용도의 인터넷 이용, 정보찾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성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이야기 되는 사회가 아닌 곳에 사는 경우에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성향이 대중과 다를 경우 말해야 하는 상대가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UMO라는 사이트,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데, 정보를 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좋다. 매우 유명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성적인 취향을 가졌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 이 곳의 장점이다.

Q. 몇 살이 성교육을 받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는지?

A. 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교사들이 대답해야 할 상황이 많이 오게 돼서 저절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누가 만지면 좋고 나쁘고 이런 기분에 대한 것,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등을 알려주게 된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한 질문에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교육을 많이 할수록,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이나 도구가 많아서 안전하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이나 일반인이 임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Q. 무엇이 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아이들마다 각각 다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A. 아이들마다 성숙도와 성적인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딜레마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반복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태도와 기술을 기르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토론이나 상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집단활동을 하는 것 등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피임에 대하여 대응하는 지 소통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많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중이다. 학교를 도와주는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다.

Q. 그런 자료를 얻는 것은 쉬운가?

A. 쉽다 자료를 얻는 것은 쉬운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것들이 문제다. 반복하고 수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혁신시켜서 상호작용하게 만들어, 이상적인 것은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입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을 물어보고 짧은 이야기를 만들거나 생각의 나무를 만들어보는 것 등.

Q. 인력이나 예산적인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A. 스웨덴은 교장이 그런 재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 입장에서 가르치기 힘들어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르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Q. 만약 교장이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RFSU같은 기관에서 와서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게 된다. 그것이 그들의 일 중에 하나이다

Q. 무엇이 스웨덴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인가?

A. 구체적이지 않은 무엇, 어떤 것, 어떻게 성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다. 너무 짧고 추상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더 많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